

중국학계의 민국시기 기독교대학의 연구 현황과 그 의미*

— 상하이 후장대학(滬江大學)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 문 상*

- 머리말
- 류잔언 총장 연구
- 교육제도와 문화 연구
-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중국학계에서 민국시기 후장대학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상하이 양수푸(楊樹浦) 지역에 위치했던 명문 기독교대학,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가 부쩍 늘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1980년대 이후 기독교대학에 대한 시각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그 이전까지 중국근현대사는 대체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중국의 저항’이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재구성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문화침략의 상징으로, 그리고 기독교대학은 제국주의의 교육제도와 문화의 거점으로 간주되었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근현대사를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겨,

* 이 논문은 2023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304930001)

**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중국근현대사 전공, jmsj0529@gachon.ac.kr

기존의 계급투쟁적 관점은 점차 퇴색하고 그 대신 근대화론적 관점이 우세해졌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학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기독교대학은 더 이상 제국주의의 교육제도와 문화의 침투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서양의 교육제도와 문화가 소개, 유입 그리고 수용되는 통로이자 장소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보면 연구자들이 상하이의 명문 기독교대학으로 이름을 높았던 후장대학에 주목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최근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활발해진 또 다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특히 개방개혁 이후 건립된 대학 가운데 최근 자신들의 역사성을 정립하려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학들은 정부 수립 후, 특히 1952년 이른바 원계조정(院系調整)을 통해 주위의 기존 여러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통합의 대상에는 청말, 민국시기에 창립되어 운영된 기독교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었다. 가령, 1960년에 건립된 허베이대학(河北大學)은 텐진공상대학(天津工商大學, 1921년에 창립된 전주교대학)을, 1985년에 건립된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은 화중대학(華中大學, 1924년 창립된 기독교대학)을, 1982년에 건립된 쑤저우대학(蘇州大學)은 동우대학(東吳大學, 1900년에 창립된 기독교대학)을, 그리고 1996년에 출범한 상하이이공대학(上海理工大學)은 후장대학(1906년에 창립된 기독교대학)을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최근 이들 대학들은 통합 대상이었던 각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¹⁾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상하이이공대학으로 파악된다.²⁾ 이 대학은 출범 10년 후인 2006년

1) 章華明·劉淑娟, 「如何看待教會大學的停辦與部分接續」,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4卷 第3期(2012.9.), 235-236쪽. 허베이대학(河北大學), 쑤저우대학(蘇州大學),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 등 대학들이 기독교대학과의 관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시도와 관련한 서술은 이 글에 따랐다.

2) 상하이이공대학은 화동공업대학(華東工業大學)과 상하이기계고등전문학교(上海機械高等專科學校)를 통합하여 상하이시립대학[上海市公辦高校]으로 1996년에 출범했다. 화동공업대학은 1952년 후장대학 폐교 후 같은 자리에 세워진 상하이공업학교(上海

‘건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자신들의 역사를 1906년에 세워진 후장대학에까지 끌어올리고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삼는 것을 대내외에 공언한 행사였다. 100년에 걸친 대학교사인 방대한 분량의 『상하이이공대학(上海理工大學): 1906-2006』까지 출판했다. 후장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났는데, 가령 학내 중앙도로를 후장대학 최초의 중국인 총장 류잔언(劉湛恩, 1896-1938)의 이름을 따서 “잔언대로(湛恩大路)”라 붙였으며, 중앙도서관을 “잔언기념도서관(湛恩紀念圖書館)”이라 명명했다. 나아가서는 학교 교훈을 후장대학 교훈인 “신의근애(信義勤愛)”에 “사학치원(思學致遠)”을 더해 “신의근애사학치원”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후장대학을 자신들의 뿌리로 공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따지고 보면, 상하이이공대학과 후장대학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큰 교육기관이다. 후장대학은 기독교대학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고 운영한 사립대학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기독교대학은 폐교 또는 통합의 대상이었으며 이들 교육기관은 제국주의의 문화침략의 거점이었고 그 제도와 문화는 사회적, 학문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두 대학은 성격도 달라 상하이이공대학은 이공계 중심 대학인 반면, 후장대학은 기독교 기반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이었다. 요컨대 두 대학은 양수푸에 세워진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상하이이공대학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라는 점을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면, 후장대학을 자신의 뿌리로 적극적으로 자리

工業學校)를 전신으로, 상하이기계고등전과학교는 1907년에 창립된 더원의학당(德文醫學堂)에 뿌리는 둔 상하이고급기계직업학교(上海高級機械職業學校, 1993년 출범)를 전신으로 했다. 요컨대 상하이이공대학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원계조정을 통해 상하이에 세워진 공업, 기계 관련 교육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공과대학으로, 후장대학과 더원의학당에 그 뿌리를 두었다. 『上海理工大學: 1906-2006』,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6, 第1編 沿革 참고.

매김하는 이유와 근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후장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는가와 관련된다. 최근 후장대학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이기도 한데, 활발한 연구는 상하이이공대학의 역사성 해명과 그에 따른 대학의 정체성 정립과 직결될 터이기 때문이다. 후장대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상하이이공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잡지, 『상하이이공대학학보(上海理工大學學報)』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이 글에서는 최근 활발해진 기독교대학의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후장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후장대학에 대한 최근 연구 현황은 물론 이들 연구에서 보이는 특징과 문제점까지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연구의 방향을 가늠한다. 동시에 필자의 향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후장대학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종합적인 분석은 2001년 왕리청(王立誠)에 의해 진행되었다.³⁾ 그는 중국근대의 교육제도와 문화는 ‘외래문화의 침투와 그것을 포용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입각하여, 미국침례회의 후장대학의 창립, 중국사회에의 적응, ‘후장대학 모델’의 확립과 운영, 항일전쟁시기와 그 이후 폐교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에 걸친 후장대학의 다사다난했던 역사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미국 침례회가 창립한 후장대학의 역사를 다면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독교대학사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그럼에도 이 연구만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내용은 물론 연구자들이 후장대학에 주목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왕리청 연구 전후, 특히 그 이후 후장대학에 대한 최근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

3) 王立誠, 『美國文化浸透與近代中國教育—滬江大學的歷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이 학술서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美國教會高等教育在中國—滬江大學個案研究」(復旦大學, 1995)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검토는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류잔언 총장 연구, 둘째 후장대학의 교육제도와 문화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들이 대체로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때 후장대학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문제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II. 류잔언 총장 연구

류잔언은 후장대학의 유일한 총장은 아니었다. 모든 기독교대학이 그러하듯이 후장대학의 초기 총장 또한 외국인 선교사였음은 물론이었다. 초대 총장은 미국 북침례회 선교사 John Thomas Proctor(柏高德, 1869-1927)였고, 그 후임은 1911년에 취임한 Francis John White(魏馥蘭, 1870-?)였다. 난징국민정부 출범 후 1928년에 류잔언이 총장에 취임하여 약 10년간 대학을 이끌었다. 류잔언이 1938년 일본의 사주를 받은 자의 총격으로 사망한 후에는 관정강(樊正康, ?-1972), 주보추안(朱博泉, 1898-2001), 정장청(鄭章成, 1885-1963), 링션양(凌憲揚, 1905-1960), 위르수안(余日宣, 1890-1958) 등이 총장 또는 원장, 그리고 대리교장 등 여러 직함으로 학교를 이끌었다.⁴⁾ 이상과 같은 여러 인물 가운데 유독 그가 연구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떠올려지는 이유는 그가 후장대학 최초의 중국인 총장이었다는 점 때문은 아닐까 싶다. 선교 교단의 인적, 재정적 지원 아래 세워지고 운영

4) John Thomas Proctor, Francis John White, 樊正康, 朱博泉, 凌憲揚 등 총장에 대한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는 章華明, 「柏高德與近代中國社會」, 『浙江檔案』(2015.12); 章華明, 「淹沒在劉湛恩光換背後的魏馥蘭」, 『天風』(2011.6); 章華明, 「滬江大學的忠誠守衛者—樊正康」, 『天風』(2012.3); 程乃珊, 「三十年代上海風雲人物」, 『滬港經濟』(1999.5); 章華明, 「滬江大學末任校長凌憲揚」, 『檔案春秋』(2011.5) 등 참고.

된 기독교대학에서 첫 중국인 총장으로 취임한 그의 이력은 주목할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난징국민정부에서 반포한 ‘총장의 중국인 임명, 종교 교과목의 필수화 금지, 종교행사의 의무화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독교대학 정책⁵⁾을 전후하여 많은 대학에서 중국인 총장이 취임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류잔언의 총장 취임 그 자체는 그렇게 특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다. 총장 취임 이후 그가 취한 일련의 정책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시 난징국민정부가 반포한 기독교대학 운영의 핵심은, 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총장의 중국인 임용, 이사회 중 반수 이상의 중국인 임용 등이었고, 교육내용에서는 종교교육 의무화 폐지 등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고등 교육 취지가 ‘삼민주의에 입각한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인재 양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독교대학은 삼민주의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의 실용화 등까지 교육과정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대학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 아래 인적, 교육적 차원에서 ‘탈종교화’ 내지는 ‘세속화’ 등 ‘중국화’의 길로 나아가야 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류잔언에 대한 연구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육운영에서 종교적 색채를 줄이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한 연구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우촨(周川)은 류잔언이 총장 취임 후 기독교과목 이수를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예배도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상학원을 설치하여 상과교육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했고,⁶⁾ 황야오(黃搖)는 그가 교육관리, 건학이념 그리고 인재양성목적 등에서 성공적으로 중국화하여 후장대학을 ‘기독교적 대학’에서 ‘기독교 영향 하의 대학’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중시했다.⁷⁾

5) 陳進金, 『抗戰前教育政策之研究』,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7, pp.261-264.

6) 周川, 「劉湛恩與滬江大學」, 『上海高校研究』 1992年 第4期.

특히 황야오는 건학이념의 중국화의 사례로 그가 직업교육을 중시한 점, 인재양성의 목적으로 직업화와 사회화, 사회복무를 제시하고 그 대표적 사례로 후둥공사(滬東公社)를 활성화하고 상하이 시내 상학원(이른바·성중구 상학원(城中區商學院))을 설치 운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연구에 따르면 류잔언 총장의 대학운영의 중국화의 대표적 예는 종교교육의 선택화 이외,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의 제도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을 중시한 점과 대학교육의 사회화와 사회복무인재 양성 등은 분리된 목적일 수 없다. 대학교육의 사회화와 사회복무인재 양성 등은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그가 추구한 교육의 중국화의 핵심적 사안은 직업교육에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총장 취임 이후 그가 정부의 기독교대학 정책에 능동적으로 호응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배경으로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

류잔언의 직업교육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세장파(謝長法), 왕리청(王立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⁸⁾ 류잔언은 총장 취임 전부터 직업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른 활동을 전개했다. 켈럼비아대학 사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1922년 2월 이후 그는 중화직업교육사(中華職業教育社, 이하 교육사)의 직업지도위원회 주임, 상하이 직업지도소(上海職業指導所) 소장, 난징직업지도소(南京職業指導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직업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각종 직업지도와 관련한 지침과 참고서 등을 편집 간행하는 한편, 상하이, 베이징, 난징, 지난

7) 黃瑤, 「華人掌校與教會大學的“中國化”—以劉湛恩執治滬江大學為例」, 『長江文明』 2018年第4期.

8) 謝長法, 「劉湛恩與近代職業教育運動」, 『職業技術教育』 2009年 第16期 總30卷, 總578期. 중화직업교육사의 직업교육활동상에 대해서는 謝長法, 「中華職業教育社與近代中國職業教育」, 『教育與職業』 2002年 第5期; 王立誠, 「劉湛恩與近代職教運動」, 『教育與職業』 1999年 第3期 등 참고.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대중 강연을 이끌었다. 이러한 활동은 중화기독교청년회 전국협회(中華基督教青年會全國協會, 이하 청년회)라는 기독교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당시 그는 청년회 지육부 총간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각 지역 조직을 통해 직업교육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류잔언은 총장 취임 이전부터 교육사, 청년회 등 조직을 통해 직업교육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했다. 이러한 활동 경험이 총장 취임 이후 그가 추진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당연하다. 교육과정의 변화, 새로운 학과와 전공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교육방침의 제정 등과 같은 제반 혁신의 추진에는 그의 직업교육의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획득되었을 직업관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란 뜻이다. 여기에 이르면 그는 직업을 과연 어떻게 사고했을지 궁금해진다. 그의 직업관에 대한 이해는, 그가 왜 직업교육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후장대학 운영의 중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화 문제를 왜 중시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존 듀이의 직업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그에게 존 듀이의 교육철학 내지는 교육학의 영향은 컸다. 존 듀이에게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이론과 실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자 민주적 사회의 도래를 전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었다. 그에게 직업은 소명으로 간주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자기발전과 성장을 의미했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뜻했다. 요컨대 자기실현과 사회적 역할을 모두 담은 개념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향후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할 능력과 지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했다.⁹⁾ 존 듀이에게 영향 받은 류잔언에게 직업은 개인적 차원의 생계 수단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개인의 적성과 장점을

9) 존 듀이/ 이홍우 번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8년 개정증보판, pp.443-460. 참고.

실현하는 것이자 사회에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를 지녔다.¹⁰⁾

류잔언 총장이 후장대학 운영의 중국화에 능동적이었던 이유와 배경으로 비기독교운동에 대한 그의 대응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즈샤(陳志霞)·쑤지량(蘇智良)의 연구에 따르면 류잔언 총장 취임 전 두 번에 걸쳐 비기독교운동이 발생했다.¹¹⁾ 첫 번째는 1922년 4월부터 시작되어 약 3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두 번째는 1924년 4월 광저우 성산르학교(聖三日學校)의 학내 소요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 해 이른바 5·30운동까지 지속되었다. 전자는, 1922년 4월 세계기독교학생동맹 제11차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자 이에 대응하여 상하이, 베이징에서 비기독교학생동맹, 반종교대동맹 등이 조직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들은 기독교청년회를 ‘자본가의 주구’라고 비판했다. 후자는, 기독교의 중국 내 교육을 문제 삼고 그 회수를 주장한 이른바 ‘교육권회수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은 5·30운동과 결합되면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비기독교운동 가운데 류잔언이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은 후자였다. 전자의 경우 그가 미국 유학에서 막 귀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거나 대응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비기독교운동, 즉 교육권회수운동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교육권회수의 여론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권회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국가주의자 천치텐(陳啓天, 1893-1984)과 공개적인 논쟁을 벌일 정도였다.

류잔언은 천치텐의 주장에, 기독교교육은 ‘회수’나 ‘폐지’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그는 기독교교육의 역사는 길고 그 성취 또한 클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독교교육의 개량

10) 劉湛恩·潘文安, 「中國職業指導的近況」, 『教育雜誌』 1928年 第3期 (章華明, 『劉湛恩文集』,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1, pp.90-91. 재인용)

11) 陳志霞·蘇智良, 「批判與改良: 非基督教運動的暴發與基督教知識分子的選擇-以劉湛恩爲考察」, 『城市: 歷史, 現實與想像』, 上海, 上海三聯書店, 2019.

방안으로 기독교교육의 취지로 훌륭한 중국 공민의 양성을 내걸 것, 총장과 이사, 교직원 등을 중국인으로 임명할 것, 정부의 각종 교육법령을 준수할 것, 종교교육의 필수 이수를 폐지하며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와 중국어 교재를 사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이 총장 취임 후 후장대학의 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제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가 후장대학의 교육의 중국화 문제에 능동적이었던 배경으로 비 기독교운동에 대한 그의 경험에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독교교육의 중국화에서 그가 중시한 것은 기독교교육의 취지, 즉 공민 양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그가 기독교교육 개량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공민 양성을 제시한 점은,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더 이상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 인재의 양성에 두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공민교육에 대한 사고와 활동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리이홍(李毅紅)·왕링링(王玲玲)의 연구이다.¹²⁾ 이 연구에 따르면, 류잔언이 공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청년회 지육부 총간사 재직 때였으며 이후 그는 청년회 조직을 활용하여 공민단체 조직, 간행물 출판, 공민검사 실시 등을 통해 공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런데, 그가 수용하고 체계화한 공민교육은 단지 정치적 범주에 한정되지 않은, 즉 개인, 가정, 사회 등 범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가령, 정치 지식, 정치 감정, 정치 능력 등을 함양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공덕심,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사랑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훌륭한 품격, 풍부한 지식, 건강한 신체 등을 함양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민교육관 내지는 사상을 갖게 된 이유로 이 연구는 주객관적

12) 李毅紅·于玲玲, 「劉湛恩公民思想研究」,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年 第3期 (總 第240期).

인 요인에 주목한다. 청말 민초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여 교육계에서 부국강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에 따라 공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 객관적 요인이라면, 류잔언이 지닌 애국정신이 주관적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가 왜 공민교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미국 유학에서 실용주의교육사상과 공민교육 등을 접했다는 점만을 언급할 뿐이다.

그가 실용주의교육에 영향을 받았다면 실용주의교육에서 공민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류잔언의 공민교육론과 실용주의교육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앞서 본 바 있는, 그의 직업관은 존 듀이의 실용주의교육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지어 보면, 류잔언의 공민교육관은 논리적으로 직업관과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그의 두 가지 주요 활동, 즉 직업교육운동과 공민교육운동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잔언의 공민교육론의 내용과 그 특징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 경험에서 온 실용주의교육론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교육의 중국화를 적극 모색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도였음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공민교육에 대한 구상은 물론 나아가서 교육의 중국화라는 보다 큰 구상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독교도로서 그가 지닌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민교육론을 비롯하여 여타 교육론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사상과 논리를 수용했다거나 그것을 그가 지닌 애국사상과 결합했다는 식의 단순한 언급과 구성만으로는¹³⁾ 그가 추구한 교육의

13) 이러한 단순논리는 류잔언의 덕육사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예외 없이 보인다. 宋青紅・劉台妨은 「劉湛恩德育思想及實踐管窺」,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4卷

중국화의 논리와 그 특징을 드러내기 어렵다.

류잔언이 총장 취임 후 교육의 중국화에 능동적으로 나선 이유와 배경으로 그의 건학사상(建學思想)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기독교대학 총장들의 건학사상을 비교 검토한 류바오슝(劉保兄)은, 그의 건학사상을 ‘미국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 ‘상하이 지역사회의 특성의 반영’, ‘학교운영의 기독교화와 세속화의 융합’ 등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했다.¹⁴⁾ 특히 앞서 언급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세속화, 즉 중국화와 함께 기독교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거론하여 교육에서 인격수양을 강조했다거나, 과학과 기독교의 기반 위에 건립된 중국 건설을 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대학운영의 기독교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교육의 중국화를 기독교도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류잔언 총장의 교육사상 내지는 대학운영방침과 관련하여 빠트릴 수 없는 연구는 도서관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총장 취임 후 교육의 중국화를 추구했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교육의 중국화를 구현하기 위해 그는 인격교육을 기반으로 학술화, 직업화, 사회복무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왕스룽(王世榮)·장화밍(章華明)은 후장대학 도서관도 이러한 류잔언 총장의 방침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¹⁵⁾ 후둥공서의 민중도서관은 대학의 사회복무 방침에 따른 것이고, 대학 내 국제관계도서관(國際關係圖書館)과 상하이 시내 상학원의 공상전공도서관(工商專攻圖書館) 등은 직업화라는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문도서관운동(中國文圖書運動)을 전개하여 도서관 내 중국어 도서 비중을 늘리기 위해

第4期(2022.12.)에서 류잔언의 덕육사상을, 근대애국주의와 서양 사덕사상(私德思想) 및 공민자치이념이 결합된 이론이라 분석했다.

14) 劉保兄, 「基督教大學華人校長辦學思想及實踐之比較」,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5卷 第4期(2011.8.)

15) 王世榮·章華明, 「劉湛恩與“滬江模式”下的圖書館」, 『圖書館雜誌』 2011年 第3期.

노력한 것은 교육의 중국화 방침의 일환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류잔언에 대한 연구는 후장대학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총장 취임 이전 그는 청년회와 교육사의 임원으로 직업교육운동과 공민교육운동을 전개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활동은 후장대학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사회활동가로서의 면모도 있었다. 총장 취임 이전 그의 공민교육운동과 직업교육운동에 대한 앞선 연구들과 중복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의 사회활동상을 다른 연구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를 비전(非戰) 활동가로 주목한 연구이다. 장화밍(章華明)에 따르면,¹⁶⁾ 류잔언은 자오쿤(曹錕)의 부패선거를 계기로 조직된 저장화평협회(江浙和平協會, 1923.8.조직)에 참여하여 직계(直系)군벌의 상하이, 저장 지역의 진격을 막아 평화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국민정부의 공산당에 대한 토벌공격을 계기로 조직된 폐지내전대동맹(廢止內戰大同盟, 1932.5.조직)에 참여하여 국공의 내전 종지와 그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주장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독교에 입각한 ‘독서지상(讀書至上), 이성애국(理性愛國)’을 주장하던 데서 항일민주운동을 적극 주장하는 지도자로 변화했다.

둘째, 그의 국민외교가의 면모를 부각시킨 연구이다. 장화밍(章華明)·왕스룽(王世榮)¹⁷⁾은, 류잔언은 중국태평양국제학회(中國太平洋國際學會), 상하이국제우의회(上海國際友誼會) 등 민간국제단체의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 조직의 리더로서 중국을 방문한 여러 외국 인사들을 접대하는 한편 관련 민간국제단체의 국제대회에 중국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의 리더였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상은 후장대학의 국제관계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고, 일본의 중국침략을 국제사회에 고발하

16) 章華明, 「劉湛恩與非戰建設運動」,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5卷 第3期 (2013.9.).

17) 章華明·王世榮, 「劉湛恩與國民外交」,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7卷 第2期 (2015.6.).

고 항일지지를 호소하는 항일활동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III. 교육제도와 문화 연구

기독교도였던 류잔언은 기독교학교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청년회, 교육사 등 조직에 참가하여 여러 사회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중국화 문제를 고민했다. 이러한 경험은 후장대학 총장 취임 후 정부의 기독교대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총장 취임 후 후장대학은 인적, 교육운영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여기서는 교육제도상 운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후장대학의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학과 내지는 전공의 신설과 운영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과교육의 운영과 후동궁서의 활성화를 다룬 연구이다. 특히 상과교육은 류잔언 총장의 교육개혁, 나아가서는 후장대학이 거둔 교육운영상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기독교대학 중 후장대학은 명망성에서 상하이의 성웨한대학(聖約翰大學), 학술수준에서는 베이징의 연칭대학(燕京大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과만큼은 첫째였다고 높게 평가될 정도이다.¹⁸⁾

후장대학에 상과가 설치된 것은 1921년이었다. 출범한지 약 16년이 지난 후였다. 상과 개설이 늦어진 이유는 초기에 종교색이 짙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표방한 때문이었다. 자유교육을 표방했기 때문에 인문 수양과 순수 이론 학술지식의 교육을 중시하며, 실용적인 직업교육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유교육 방침은 1

18) 王立誠, 「滬江大學與近代商科教育」, 『近代中國』 第6輯(1996).

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사회로부터 제기된 민족주의적 도전과 존 듀이의 교육론의 확산에 따라 변화해 갔다. 교육은 중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되어야 하며, 학생의 개성의 발견과 발전 그리고 그 자립과 자존의 실현에 그 목적이 두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대학 지도층에서는 직업적, 실용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상공업의 중심지라는 상하이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더해져 마침내 상과 개설이 이루어졌다.¹⁹⁾

류잔언 총장의 직업교육 중시 방침까지 더해져 상과는 학내 주요 전공으로 자리 잡았고 나아가서는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재학생수나 졸업생의 취업률 등에서 앞서는 등 적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학과 운영은 기대만큼 안정되지 못했다. 교수자가 부족했으며 학생 실습 기회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사회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류잔언에게 이는 큰 고민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상하이 시내에 별도의 상과를 설치한 것이었는데, 상하이 시내 상학원이 그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상과교육을 시중심에 하나 더 설치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상귀량(常國良)·장젠원(張健穩), 왕리칭(王立誠)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상하이 시내 상학원의 설치 운영은 상업교육의 사회적 운영이라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한 것이었다. 첫째,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직업 청년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했고, 둘째, 상하이 상공계층과 사회계층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겸임교수로 임용하여 상하이 사회로부터 인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장소 제공, 각종 자금지원 등 물질적 지원까지 이끌어 냈으며, 셋째, 대학본과 갑을조, 전수과, 보통과, 특과 등 다양한 과

19) 이상의 상과 설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常國良·張健穩, 「從滬江大學看近代上海高等商業教育的辦學路向—兼論教會大學中國化」,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5卷 第4期 (2008.7.), p.108.; 王立誠, 위의 논문, pp.43-47. 등 참고.

정을 두어 수강생의 수요에 맞게 학제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했다.

상하이 시내 상학원의 성공적 운영은 후장대학의 상과교육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전국 고등교육기관 중 상과 재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서 가장 많은 재학생 수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취보다, 류잔언 총장의 교육의 중국화를 위한 시도들, 즉 직업화, 사회화 등과 같은 대학운영방침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²⁰⁾

후동궁서도 류잔언이 총장으로 취임한 후 활성화되었다. 1915년 사회학과 학생들의 사회조사, 사회구제 그리고 선교활동을 목표로 양수푸 지역에 후장사회복무단(滬江社會服務團)이 조직되었다. 이후 점차 선교활동은 줄어들고 구제와 교육 등 사회활동이 강화되면서, 1917년 후동궁서로 확대 개편되었다.²¹⁾ 조직 개편 후 후동궁서의 대민활동은 활발해졌는데, 특히 류잔언 총장 취임 이후 그 활동력은 더욱 왕성해졌다. 그는 평민교육과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확장을 역설하면서 후동궁서가 양수푸 지역 문화 개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때문이었다.²²⁾ 총장의 후원과 지지에 힘입어 교육생 수는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탁아소, 진료소, 도서관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등 그 활동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기존 활동은 물론 난민구제활동까지 전개할 수 있었다.

후동궁서는 서양에서 도입된 사회사업사상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기도 했다. 즉, 애초 선교사들에 의해 사

20) 黃瑤, 「華人掌校與教會大學的“中國化”—以劉湛恩執政滬江大學為例」, 『長江文明』 第32輯, pp.76-77.

21) 馬長林, 「基督教社會福音思想在中國的實踐和演化—以滬江大學所辦滬東公社為中心」, 『學術月刊』 2004.3.; 周淑利·彭秀良, 「滬江大學和滬東公社」, 『蘭臺世界』 2009年 12月上半月 등 참고.

22) 黃瑤, 위의 논문, p.76.

회사업사상이 중국에 전파되었지만 점차 종교색채가 약화되고 대중교육, 사회개량, 자선구제활동 등이 강화된 양상으로 발전해갔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서양의 사회사업사상의 중국화 사례로 주목한 것이었다.²³⁾

류잔언 총장 취임 이후 변화된 전공의 또 다른 사례로 정치와 역사관련 전공을 들 수 있다.²⁴⁾ 류잔언 총장 이전 정치학과 역사학은 경제학, 사회학 등과 함께 사회과학과 아래에 따로 편제되어 있었다가, 류잔언의 총장 취임 이후 난징국민정부의 원계체제(院系體制) 개편 정책에 따라 역사학과 정치학은 문학원 아래 정치·역사학계(政治及歷史學系)로 통합 설치되었다. 정치학과 역사학을 하나의 전공으로 개설한 것은 당시 대학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통상 정치학은 법학원, 역사학은 문학원에 개설한 때문이었다. 정치학과 역사학을 한 전공으로 설치한 것은 두 전공 책임교수가 상당 부분 겹쳤고 두 전공 중 역사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았다는 현실을 고려한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두 전공을 하나의 전공으로 운영했던 데에는 류잔언 총장 나름의 교육적 비전도 있었다.

그것은 이론에 치우친 정치학이나 학술적인 역사학 전공자가 아닌, 당시 복잡한 국제관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사를 전공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학과 역사학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현대 국제관계 이론, 국제관계 등을 세계사와 결합시켜 거시적 역사적으로 국제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류잔언 총장의 교육사상 연구와 동반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 몇 가지를 추리면, 첫째, 영어학과 연구, 둘째, 음악학과 연

23) 孫志麗·張昱, 「中國近代教會大學與社會工作」, 『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年第2期; 李卓·王如月·郭占鋒, 「社會工作思想在近代中國的發端與實踐—以滬江大學創辦的“滬東公社”為例」, 『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年第2期.

24) 韓戊, 「教會大學的學科設置與分合—以滬江大學政治學科及歷史學科爲中心」, 『民國檔案』 2018.1.

구, 셋째, 건축물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후장대학에서 영어학이 하나의 전공으로 운영된 것은 1929년이였다. 물론 전공이 없었다고 해서 영어교육이 경시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기독교대학과 마찬가지로 후장대학에서도 영어는 입학시험은 물론 수업에서 중시되었으며 학생들의 영어능력은 출중했다. 진링대학(金陵大學), 성웨한대학, 지장대학(之江大學)과 함께 구성된 ‘동방4교(東方四校)’의 1923년도 영어응변대회에서 후장대학이 우승을 차지할 정도였다.²⁵⁾ 천쉐펀(陳雪芬)의 연구에 따르면, 후장대학의 영문학과는 운영상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었다. 실용을 겸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수준 높은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창작과 연설능력의 함양을 위한 실용적 교과운영은 타 대학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색이었다.²⁶⁾

후장대학에 영문학과가 개설된 같은 해에 음악학과와 음악사범과도 함께 개설되었다. 영문학과가 정식으로 개설되기 전에도 영어교육이 중시되었듯이, 음악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초기 자유교육방침과 관련이 깊었다. 음악교육은 자유교육의 중요 구성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White 총장이 직접 창가과목(唱歌課)을 개설 운영했고, 1917년에는 음악감상과목(音樂欣賞課)을 개설 운영할 정도였다. 학생들의 음악활동도 활발했는데, 특히 음악 관련 학과가 개설된 후 교내에는 다양한 음악활동 동아리들이 조직되어 활동했다.

이상과 같이 음악교육을 분석한 천징(陳晶)이 주목한 것은 음악학과 학생들의 자치활동 등에서 중국과 서양 사이에 문화의 유입과 수용, 그리고 융합이 이루어진 점,²⁷⁾ 음악학과에 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25) 陳雪芬, 「民國時期滬江大學英文系辦學思想分析」,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8卷 第3期(2016.7), p.292.

26) 陳雪芬, 앞의 논문, pp.292-294.

27) 陳晶, 「上海滬江大學器樂音樂社團研究」, 『中央音樂學院學報』 2014年 第4期.

주목하여 여성교육, 특히 여성의 음악교육에 후장대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다.²⁸⁾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캠퍼스 공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캠퍼스 위치 설정과 설계,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의 배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 캠퍼스는 창립자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미국의 대학 캠퍼스의 풍격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현은 후장대학을 창립한 미국 침례회 선교사의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낸 것으로 서양문화를 소개하고 활용하여 중국을 개조하고 기독교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였다고 보았다.²⁹⁾

IV. 맺음말

상하이이공대학은 2006년 건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자신은 후장대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상하이이공대학은 후장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공과대학임을 공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대학은 양수푸라는 지역성을 공유할 뿐 여러 차원에서 이질적이었다. 후장대학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사립대학이자 인문사회 계열의 교육기관이었던 반면, 상하이이공대학은 상하이시립 이공계열의 대학이었다. 같은 교지에 세워진 대학이라고 해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갈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하이이공대학은 후장대학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며 그 역사를 공유하고자 한 것일까. 이 글에서 상하이이공대학 건교 100주년을 전후한, 특히 그 이후의

28) 陳晶, 「男女同校制度下的滬江大學女子音樂教育研究」, 『中國音樂學』 2017年 第4期.

29) 王勇·劉衛東, 「滬江大學校園空間形態及歷史建築解析」, 『建築歷史』 2008.7.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들에 주목한 이유이다.

왕리청에 의해 가장 이른 시기의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본격화된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들을 일별할 때, 연구자들의 관심은 류잔언 총장과 대학의 교육제도 및 문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류잔언에 대해서는, 공민교육론과 직업교육론 등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 총장 취임 이후 탈종교화, 세속화를 지향한 대학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민의교활동과 비전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는 상과교육과 후동궁서에 대한 연구, 정치·역사, 영문, 음악 등 전공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연구, 캠퍼스 공간 및 학생활동 등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세밀히 분석되고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상의 연구들로 약 반세기 동안 운영된 후장대학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양상에 대한 해명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음이 주목된다. 가령 인물 연구가 류잔언에 집중된 것도 그러려니와 대학제도와 운영에도 류잔언과의 관련성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편의적으로 기존 연구를 두 범주로 구분했지만, 실상은 류잔언에 대한 연구로 일괄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연구자들은 왜 류잔언에 주목하는가, 또 류잔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류잔언은 후장대학의 기구와 교육의 중국화를 달성한 총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사회, 교수진 내 중국인 비율을 늘려 의사결정구조를 중국화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을 선택화하며 학술화를 통해 교육의 세속화를 추구했으며, 동시에 교육의 직업화와 실용화, 그리고 사회화까지 적극 추구하는 학과운영과 교육제도의 중국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인물로 주목한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요인이자 배경으로 그의 공민교육론과 직업교육론 등 교육론에 주목하지만, 더욱 주목한 것

은 그가 5·4운동 이후 흥기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며, 상공업도시라는 상하이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중국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학운동을 혁신하여 후장대학을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의 영향 하의 대학’으로 변화시킨, 즉 중국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인물이라는 점이였다.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로서의 류잔언에 대한 주목과 강조는 그의 비전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일련의 비전활동을 통해 군벌뿐만 아니라 국공 간의 대립과 갈등, 내전까지 비판했지만, 그것은 기독교교리에 입각한 평화적 방식의 사회운동이었다. 군벌전쟁, 국공내전, 항일운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개량적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마침내 항일민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지도자로 변화했다는 데 주목했다.

최근 후장대학 연구에서는 보이는 이상과 같은 경향을 볼 때, 상하이가 공대학이 후장대학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공유 내지는 전유하고자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최근 중국의 대학들이 청말 민족시기에 창립되고 운영된 기독교대학을 자신의 뿌리로 역사화하는 논리와 근거를 어디서 찾고자 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 등 서양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학교제도를 성공적으로 중국화한 경험과 논리, 그리고 그 역사였다. 특히 류잔언이란 인물은 흥기한 민족주의를 외면하거나 그것에 거리를 두기보다는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그것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즉 기독교교육의 중국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민족주의 교육자로 주목하고 있다.

참고문헌

- 《上海理工大學志》編纂委員會 編,『上海理工大學志(1906-2006)』,北京,高等教育出版社,2006.
- 王立誠,『美國文化浸透與近代中國教育—滬江大學的歷史』,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1.
- 章華明,『劉湛恩文集』,上海,上海交通大學出版社,2011.
- 陳進金,『抗戰前教育政策之研究』,臺北,近代中國出版社,1997.
- 劉保兄,「基督教大學華人校長辦學思想及實踐之比較」,『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5卷 第4期,2011.8.
- 李毅紅·于玲玲,「劉湛恩公民思想研究」,『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5年 第3期(總 第240期).
- 李卓·王如月·郭占鋒,「社會工作思想在近代中國的發端與實踐—以滬江大學創辦的“滬東公社”為例」,『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7年 第2期.
- 馬長林,「基督教社會福音思想在中國的實踐和演化—以滬江大學所辦滬東公社為中心」,『學術月刊』,2004.3.
- 謝長法,「劉湛恩與近代職業教育運動」,『職業技術教育』,2009年 第16期.
- 謝長法,「中華職業教育社與近代中國職業教育」,『教育與職業』,2002年 第5期.
- 常國良·張健穩,「從滬江大學看近代上海高等商業教育的辦學路向—兼論教會大學中國化」,『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35卷 第4期,2008.7.
- 孫志麗·張昱,「中國近代教會大學與社會工作」,『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年 第2期.
- 宋青紅·劉怡妨,「劉湛恩德育思想及實踐管窺」,『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4卷 第4期,2022.12.
- 王立誠,「劉湛恩與近代職教運動」,『教育與職業』,1999年 第3期.
- 王立誠,「滬江大學與近代商科教育」,『近代中國』第6輯,1996.
- 王世榮·章華明,「劉湛恩與“滬江模式”下的圖書館」,『圖書館雜誌』,2011年 第3期.
- 王勇·劉衛東,「滬江大學校園空間形態及歷史建築解析」,『建築歷史』,2008.7.
- 章華明,「劉湛恩與非戰建設運動」,『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5卷 第3期,2013.9.
- 章華明,「柏高德與近代中國社會」,『浙江檔案』,2015.12.

- 章華明, 「淹沒在劉湛恩光換背後的魏馥蘭」, 『天風』, 2011.6.
- 章華明, 「滬江大學末任校長凌憲揚」, 『檔案春秋』, 2011.5.
- 章華明, 「滬江大學的忠誠守衛者—樊正康」, 『天風』, 2012.3.
- 章華明·劉淑娟, 「如何看待教會大學的停辦與部分接續」,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4卷 第3期, 2012.9.
- 章華明·王世榮, 「劉湛恩與國民外交」,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7卷 第2期, 2015.6.
- 程乃珊, 「三十年代的上海風雲人物」, 『滬港經濟』, 1999.5.
- 周淑利·彭秀良, 「滬江大學和滬東公社」, 『蘭臺世界』, 2009年 12月 上半月.
- 周川, 「劉湛恩與滬江大學」, 『上海高校研究』, 1992年 第4期.
- 陳雪芬, 「民國時期滬江大學英文系辦學思想分析」, 『上海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8卷 第3期, 2016.7.
- 陳晶, 「男女同校制度下的滬江大學女子音樂教育研究」, 『中國音樂學』, 2017年 第4期.
- 陳晶, 「上海滬江大學器樂音樂社團研究」, 『中央音樂學院學報』, 2014年 第4期.
- 陳志霞·蘇智良, 「批判與改良: 非基督教運動的暴發與基督教知識分子的選擇—以劉湛恩為考察」, 『城市: 歷史, 現實與想像』, 上海: 上海三聯書店, 2019.
- 韓戊, 「教會大學的學科設置與分合—以滬江大學政治學科及歷史學科為中心」, 『民國檔案』, 2018.1.
- 黃瑤, 「華人掌校與教會大學的“中國化”—以劉湛恩執政滬江大學為例」, 『長江文明』, 2018年 第4期.

• 국문초록 •

이 글은 건교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이공대학이 자신의 뿌리로 천명한 후장대학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로 최근 이루어진 후장대학에 대한 연구성과에 주목했다. 류잔언 총장에 대한 연구와 교육제도 및 문화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는 최근 성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첫째, 류잔언 총장에 대해서는 공민교육론과 직업교육론 등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 총장 취임 이후 탈종교화, 세속화를 지향한 대학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민외교활동과 비전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둘째, 교육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는 상과교육과 후동궁서에 대한 연구, 정치·역사, 영문, 음악 등 전공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연구, 캠퍼스 공간 및 학생 활동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셋째, 최근 연구는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데, 그것은 기독교교육의 중국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상하이이공대학이 후장대학을 자신의 뿌리로 삼으려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짐작하게 한다. 그것은 기독교 등 서양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학교제도를 성공적으로 중국화한 경험과 논리, 그리고 그 역사였다. 특히 류잔언은 흥기한 민족주의를 외면하거나 그것에 거리를 두기보다는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그것을 교육에 수용했던, 즉 기독교교육의 중국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로 주목되고 있다.

주제어 : 상하이, 기독교대학, 후장대학, 상하이이공대학, 류잔언, 교육의 중국화, 존 듀이, 비독교운동

• Abstract •

Recent Studies of Christian University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studies of *Hujiang* (滬江) University

Chung, Moon-s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at traditions and culture University of Shanghai for Science and Technology(USST) wants to inherit and develop from *Hujiang* University, which it declared as its roots. In an attempt to explain this problem, this paper focuses on recent studies of *Hujiang* University.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President *Liu Zan-en*, his educational ideas, university policies aimed at dereligionization, and various social activities were analyzed. Second, regarding the educational system and culture,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education, activation of *Hudonggongshe* (滬東公社),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actical majors, and campus space and student activities were studied. Third, the research of *Hujiang* University as described above showed a certain tendency. It focuses on the issue of Sinicization of Christian education.

Key word : Shanghai, Christian University, *Hujiang* University, USST, *Liu Zan-en*, Sinicization of Education, John Dewy, Anti-Christian Movement